

8/20/17

설교 제목: 신부의 사모함 (아가서 3 장)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아가서 3:1

(아 3: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 3: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 3:3)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 3: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절관주** 롬 8:35

(아 3: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절관주** 아 2:7, 아 8:4

(아 3:6) ○물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절관주** 아 8:5

(아 3:7) 불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아 3: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절관주** 렘 50:9, 시 91:5

(아 3:9)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아 3: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아 3:11)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씩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 3: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신부는 밤에 침상에서 신랑을 찾으나 찾지를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신랑이 밤에 침상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에 침상에서 신랑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신랑이 있어야 할 시간, 있어야 할 장소에 없었음을 말합니다.

침상은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 계신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영혼의 깊은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보면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불경건, 돈, 권력, 쾌락 등등의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탄하게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가게 했던 것처럼,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 40 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오 하여금 내 감정과 내 감각이 중심이 되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이런 훈련을 거쳐 칭의(righteousness), 성화(sanctification)의 단계를 거쳐 영화(glorification)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시킨 16 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한 나라 안에서 전쟁도 감수했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노예 해방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남과 북이 나뉘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은 어느 편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치열했습니다.

전사자 62 만명을 포함하여 103 만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103 만명은 당시 미국 인구의 3%에 달합니다.

처음에는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북군이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군에게 밀렸습니다.

남군에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인 로버트 리 장군이 버티고 있어서 북군은 남군과의 접전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께 제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아 3: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신부는 일어나 성 안을 돌아다니며 신랑을 찾으려 하지만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같이 갈급하고 괴로운 때는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내가 찾아 나선다고 무조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방향 가운데 당신을 애타게 찾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끔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잠시나마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성도로 하여금 당신에 대해 온전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3:3)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신부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신랑을 보았느냐고 물었으나 그들에게서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 안은 예루살렘 성,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도는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순찰하는 자들'은 파수꾼들 즉 영적으로 깨어서 살피는 자,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지 못하여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 3: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신부는 바로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가 주를 사모하며 그를 애타게 찾았고 찾아 헤맨지 얼마 되지 않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께서 성도를 멀리 떠나 계시지도 또 성도를 버리시지도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주께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당신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찾아 헤매는 성도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렘 29: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렘 29: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부는 이제 신랑을 꼭 붙들고 그의 어머니 집, 그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집, 그를 잉태한 자의 방'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또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 헤매면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제 다시는 그를 놓치지 않으려 꼭 붙듭니다.

(아 3: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지난 주에 나누었던 아가서 2장 7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신랑은 자신의 사랑으로 인해 이제 겨우 다시 자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 오게 된 신부를 또 다시 세상적인 것들로 유혹하여 흔들여 놓지 말라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경고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신실하지 못한 형식적인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식적 교인들의 불경건, 교만, 세속주의, 분쟁 등은 참된 신자들의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주님은 참된 성도들이 교회 안의 악한 자들이나 위선자들로 인해 평안을 잃지 않도록 치리하십니다.

주님은 성도가 누리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통과 동행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부는 지금 신랑 곁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곁에 거하고 그와 동행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 3:6)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인 신부와의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친구들이 하는 말로 원문은 "이 여자가 누구인가?"로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신부를 가리켜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고 합니다.

거친 들은 고난 많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악하고 고통스런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 1: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

또 친구들은 신부를 '연기 기둥' 같다고 합니다.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같이 연기 기둥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사가 든 금향로의 향연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것을 봅니다.

(계 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 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날마다 성소에서 올려지는 분향같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또 친구들은 신부를 몰약과 유향과 여러가지 향품으로 단장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중생하고 성화되어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엡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호 14:4)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 14: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 14:6)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성도는 거친 들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항상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아름다운 인격과 삶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 3:7) 불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아 3: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신부는 친구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가로막고 신랑을 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혼인식장으로 들어가려고 옵니다.

솔로몬의 가마는 이스라엘 용사 60 인이 옹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수행하고 경호하는 자들로서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주를 수행하는 자들은 능력의 천사들, 주의 충성된 종들 그리고 헌신된 성도들입니다.

세상은 악하며 악령들의 역사가 많아 두려운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왕과 교회를 호위하는 무리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천사들, 충성된 종들과 헌신된 성도들이 옹위하고 있기 때문에 밤 같은 세상에서도 안전합니다.

능력의 천사들, 충성된 종들과 헌신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 마귀와 악령들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옹위합니다.

(아 3:9)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아 3: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솔로몬 왕의 가마에 대한 묘사입니다.

솔로몬왕의 가마는 레바논 나무 곧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씩워졌고 자리 곧 좌석은 자색 깔개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여자들의 장식품들이 입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의 가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향기나는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교회의 기둥은 은같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충성된 종들입니다.

교회의 밑받침은 금같이 보배롭고 불변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만들어졌으며 그 안에는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이 입혀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태우고 밤 같은 세상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 3:11)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씩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혼인 날 신랑 솔로몬 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 결혼식에서 신랑은 축제의 왕으로서 왕관을 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메시아가 왕권을 인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그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혼인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 우리 주님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혼인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가 예비해 놓으신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면류관을 쓰신 주의 영광을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삶이 힘겨우십니까?

그렇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또 그 날 뵈올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